



수기공모 - 우수작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 아름다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신 나의 어머니님 마리아를 위하여
(중략) 남은 삶을 다듬어 가리라.....

나는 2003년도에 정릉에서 길음동으로 이사를 했다.

정릉은 비교적 공기도 좋고 산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지 시골스러운 데가 조금은 남아 있어서 정붙이고 살기가 그럭저럭 괜찮다 싶었는데 이곳 길음동은 정릉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앞쪽이 모두 아파트였다. 숨쉬기조차 힘든 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아파트와 시장이 전부였다. 며칠 동안 동네 분위기를 익히느라 골목도 돌아보고 큰길에도 나가보고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니 사람 사는데 어딘가 어머랴 오히려 정이 들기 시작했다.

정릉에서 하던 가정 호스피스를 길음동에서도 하려고 길음1동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을 찾아갔다. 나는 성가복지병원에서 호스피스를 하고 있으면서 가정 호스피스도 하고 있으니 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하였다. 금방 동사무소의 직원이 반가운 얼굴을 하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 골치 아픈 환자가 한분 있는데, 그분은 취장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어 대·소변도 제대로 못보고 있다면서 반색을 하였다.



이 영 렬(요한)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직원의 어투로 미루어 보아 꽤나 골치 아픈 환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생활보호대상자이냐고 물어보니 서천 고향에 부인이 계시고 장성한 3남매가 있어서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걱정을 한다. 어디 사시느냐고 하니 저길 건너 골목길 옆에 허름한 한옥집이 있는데 그 집 대문간 쪽방에 혼자 사시면서 투병하신다고 한다. 자식이 셋씩이나 있으면서 혼자서 암 투병을 하고 있다니 무슨 큰 이유야 있겠지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지금 가볼 수 있느냐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 선뜻 응낙하며 일어선다. 담당직원과 나는 곧바로 그 집으로 향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너무 심하여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가정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환자를 보아 왔지만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 환자 혼자 내버려진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악취가 나는 것을 대충 치우고 집안 정리 정돈을 하여 놓은 다음 환자상태를 살펴보았다. 가정 호스피스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성가복지병원에 가정 호스피스 담



당이신 양비오 수녀님께 이 환자에 대해 이야기
기를 드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이야기를 들으
신 양 수녀님께서서는 함께 방문해 보자고 하시
어 수녀님과 함께 다시 그 집을 찾아 갔다. 수
녀님께서서는 환자를 살펴보고는 너무 심각하
다고 하시면서 성가복지병원에 입원을 시켜 돌
봐드리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필듯이 기뻐다. 서류상으로는 입원시킬 자격이
안 되지만 성가복지병원의 배려와 양 수녀님의
노력으로 그 환자는 입원을 하게 된 것이다. 처
음의 그 암담하던 상황은 일단 끝이 나고 입원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니 내 마음이 여간
개운한 게 아니다.

성가복지병원과 양 수녀님께 어찌나 고마운
지…….

이 모든 일이 어찌 주님의 자비하심과 성모
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김00님의 고향인 서천에 살고 계신다는 부
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께서 이 지경이 되었
으니 좀 오셨으면 한다고 하니 자기하고는 상
관이 없다고 하면서 호적상으로는 부부이지만
개만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누가 전화기
를 빼앗는 듯이 전화를 내려놓는 것이었다.
우리 3조한테 배당된 환자는 아니지만 내가 안
내하여 입원시키고 우리 동네에 사시던 분이었
기에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발마사지도
해드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도와드려도 본인은
병어리인지 입을 열지를 않는다. 가족에게 버
림받고 혼자서 어렵게 투병생활을 하면서 얼마
나 상처를 받았으면 말문이 막혔을까? 나는 그
런 그에게 차츰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말 못할 영적
인 괴로움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 좋은 글이 있
으면 성가복지병원에 갈 적마다 가지고가서 읽
어드리곤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루는

수녀님께서서는 환자를
살펴보시고는
너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성가복지병원에
입원을 시켜
돌봐드리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필듯이 기뻐다.

나를 보며 말문을 떼는 것이었다. 할 수만 있으
면 야외에 나가서 마음껏 바람이라도 마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수녀님께 말씀드렸
더니 가톨릭기사 사도회 도움을 받아 수유리에
있는 명상의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
셨다.

명상의 집에 도착하니 느티나무 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신다.

모처럼 나와 본 밖의 세상이 너무나 좋으신
지 주위를 자꾸만 둘러보며 감격해 하는 눈치
가 역력하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
를 나와 소령으로 예편 하였으며 결혼하기 전
에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그 여자와 결혼을 못하고 중매로 결혼을 하였
으나 부인과는 애정이 없었고 어찌다 아이 셋
을 낳았지만 집에도 가지 않고 월급 타서 집에
한 푼 보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저 육체적
인 쾌락에 빠지다보니 저축한 돈은 없고 제대
를 하고는 고생고생 하면서 안 해 본 것이 없다
고 말하면서 부인이 시골 5일장을 찾아다니면
서 보따리장사를 하여 식구들 먹여 살리고 아
이들 셋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지금은 결
혼까지 시켰다고 한다. 자식들 교육은 물론 결
혼식에도 한번도 참석을 안 한 애비 놈이 무슨
면목으로 자식들 얼굴을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죽일 놈이고 마지막 동거녀도 자기가
돈이 없고 죽을병이 들으니 어디론가 가버렸
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을 헛살았고 못
된 짓만 하고 살았으니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
슨 소용이 있느냐고 한탄한다. 지옥이 있으면
자기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성가복지병원에 와서 보니 자기가 58년간 살
아오면서 객지에 나와서 생활한 뒤로 조건 없
는 참사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데도 다 있나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만약 내 몸이 건강해 진다면 이선생님과 같이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이제는 그것이 안 되니까 단 한달 그것도 안 되면 단 하루라도 진정한 봉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으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시는 것이었다.

그렇다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분의 참회는 참으로 진실이고 진정한 것 같다. 나는 울고 있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에게 말했다. 김00님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면서 언젠가는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자연사로도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살인자도 용서하신다고 그를 위로 하였다. 나의 이 말에 그는 하느님은 정말로 계시고 존재하시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지 않고도 김00님께서는 사관학교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상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십니까? 비슷한 예로 지구도 공중에 떠 있고 그 어마어마한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수 만도의 열을 가진 태양도 녹아내리지 않고 허공에 떠서 우리들에게 사계절과 따스한 햇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더구나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본다면 어찌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군가는 꼭 계시겠지요.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분에게 내가 도리어 감동되어 열심히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려니 그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십니다.

성가를 부르는
우리들도 울고
베드로가 통곡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진홍빛 같은
그의 죄가
백합꽃같이 하얗고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같이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김00님께서 저 같은 평신도에게 죄를 고백하지 말고 수녀님한테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영세를 받으신 다음에 하느님의 대리자이신 신부님께 정식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무슨 죄도 다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교리로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고백성사라고 말합니다 하였더니 공감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환자의 병세는 호전되는 기색은 별로 없었으나 그의 굳어져 있던 표정은 하루하루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있었다.

하루는 찾아갔더니 교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기에 교리담당 수녀님이신 노렌쥬 수녀님께 부탁하여 교리를 배우면서 그후로 나하고 다시 만날 때는 주로 신앙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며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마침 교리를 다 배우고 영세를 받아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계시기에 우리 3조 호스피스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성가인 “주여 이 죄인이”를 불러 드릴 적에는 성가를 부르는 우리들도 울고 베드로가 통곡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진홍빛 같은 그의 죄가 백합꽃같이 하얗고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같이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베드로님은 영세를 받은 지 꼭 12일째 되는 날에 선종 하셨다.

수녀님께서 서천 고향에 계신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 설득하고 나도 전화를 하여 김00님께서 가족들에게 자기가 잘못하여 상처를 주고 고생시킨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에 가셨다고 그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남편에게 처음부터 버림 받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한이 맺혀서인지 “하느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개만도 못한 인간을 받아주시는 하



느님이 있느냐”고 어서 전화를 그만 끊으라고 악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부인의 억울하고 슬펐던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인내로서 그분을 설득하였다. 그간의 사연을 나도 다 알고 있노라며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음 앞에 용서가 되지 않을 게 무엇이나며 사정사정 설득을 하였더니 조금씩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았다. 올라 오리라 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튿날 아들 딸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 온 것이다. 나는 내가 잘못된 것처럼 그 부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돌아가신 분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자매님께 전화를 드린 누구라고 말하면서 김00님께서선 선종하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못할 짓을 하였다고 뉘우치면서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는 인간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살았다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라고 그간의 그의 생활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그 인간이 뉘우칠 인간이 아니지요. 천하에 못된 인간” 하면서 하늘만 우러러 본다. 그리고 나서 재차 정말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였느냐고 물어보기에 내가 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하면서 부인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하니 그제야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뭍쓸 사람 불쌍한 사람” 하고는 흐느끼느라 다음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다.

얼마간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올라오려고도 하지 않았으나 하도 여러 번 수녀님과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자기 남편을 화장 하여 재나 들판에 뿌려 주려고 왔으나 막상 와 보니 인생이 불쌍하여 서천 고향집으로 모시고 가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선영에

나는 그들 가족이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어 모아 맞추며
융합하여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모신다고 하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너무나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나온다. 아들 딸들도 그제서야 어머니 곁에서 훌쩍 훌쩍 우는 모습을 볼 때 베드로님의 부인과 자녀들이 흘리는 저 눈물은 무슨 의미의 눈물일까 생각한다. 시집와서 한평생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그 긴 질곡의 세월을 걸어온 이의 회한의 눈물, 호강 한번 못해 본 한의 세월을 녹여 내리는 용서의 눈물일 것이며 자녀들의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지워버리고 용서로 다가가는 진정한 화해의 눈물일 것이다.

나는 그들 가족이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어 모아 맞추며 융합하여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래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묵상해 본다. 나는 베드로님과 인연을 맺은 것을 내 인생에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내 69년 개인의 역사를 가감 없이 되돌아보면서 숨김없이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것은 용서를 청하고 하여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을 정리하여 가리라. 그리하여 먼 훗날 뒤돌아 본 내 발자국이 흐트러져 있지 않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기를 기도하리라.

윤동주 시인이 쓴 시에 표현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신 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하여 달라고 내 가슴의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부탁을 드리며 남은 삶을 다듬어 가리라 다짐해 본다.

베드로님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소서 아멘. 🐦